# 한일 상춘문화와 근대

## - 벚꽃의 상징 변화를 중심으로 -

**김정은***
jungeun99@hanmail.net

Contents

Ⅰ. 서론
Ⅱ. 근세의 한일 상춘문화
Ⅲ. 벚꽃과 일본제국주의
Ⅳ. 식민지시대 조선의 상춘문화
Ⅴ. 결론

## Ⅰ. 서론

『사계의 조선』(四季の朝鮮, 1926)은 신문기자인 가메오카 에이키치(龜岡榮吉)가 13년의 조선 경험을 토대로 엮은 조선 "안내기"[1]이다. "봄편(春之卷)"에는 개화시기가 이른 마산(진해)을 필두로 수원, 경성, 인천, 개성, 의주의 벚꽃 명소가 항목화 되어 있어, 1926년에는 조선 각지에 벚꽃 명소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벚꽃 명소는 이주해온 일본인들이 불과 20년 사이에 조성한 장소들이었다.

> 봄을 대표하고 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꽃이다. (중략) 벚꽃이야말로 실로 봄의 최고의 자랑이며 꽃 중의 왕이다. 그러나 우리 조선에는 내지처럼 많은 벚꽃 명소가 없다. 그 이유는 고래 이 나라 사람들의 벚꽃에 대한 감상의 념(念)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벚꽃은 겨우 군궁용(軍弓用)으로 경성 교외 가오리나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수료.

1) 조선총독부 철도국 이사 戸田直温의 서문에 의함. 亀岡栄吉(1926)『四季の朝鮮』朝鮮拓殖資料調査会, 韓国地理風俗誌叢書298, 경인문화사(1995), p.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우이동에 식재(植栽)한 외에는 별로 밀식(密植)된 곳도 없는 것이다. (중략) 그런데 병합 이래 내지인의 이주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들은 거의 그 국민성이라도 해도 될 벚꽃에 대한 동경을 버릴 수가 없어, 고국의 봄을 생각할 때도 조선에 벚꽃이 없음이 얼마나 쓸쓸함을 느끼게 했을까. 그 결과 백 그루, 이백 그루라는 식으로 시험적으로 요시노자쿠라(吉野桜)의 이식을 기획하는 자가 나와 그 성적이 좋음이 실증되어, 각지에서 다투어 이식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점차 벚꽃 명소가 곳곳에 생겨, 봄에 보다 더 한 번창과 광명을 가져다 준 것이다.[2)]

봄 꽃 중에서도 벚꽃이 제일인데, 조선에는 일본처럼 벚꽃이 많지 않아서, 벚꽃이 그리웠던 일본인들이 조금씩 심기 시작하여, 결국 명소가 많이 생겼다고 나와 있다. 또 가메오카는 "어느 땅이든 내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10그루, 20그루의 벚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특히 온천이 있는 곳이나 공원 등에는 다투어 벚꽃을 심고 대대적으로 국수발휘에 진력하고 있는 듯하다"[3)]라고도 말하고 있어, 대규모 식수 외에도 일본인이 정착하거나 개발한 지역에는 반드시 벚나무가 심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조선 내에서 식수된 벚꽃은 조선에 있는 일본인의 향수를 달래주기 위해 심어진 일본을 상징하는 꽃이었다.

당시에 심었던 벚꽃나무는 이미 그 수명을 다하였으며, 현재 볼 수 있는 꽃들은 일본과는 상관없이 봄의 경치를 위해 심어진 것이 대부분이나, '일본 꽃'이라는 벚꽃의 이미지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조선의 벚꽃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발행된 자료에서 그 논거를 찾고 있으며, '벚꽃 구경'을 일제에 의해 이식된 행락문화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조선인과 일본인의 간극을 분석하거나,[4)] 이식된 행락문화로 인해 전통문화의 변질을 지적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5)]

---

2) 亀岡栄吉, 앞의 책, pp.17-18.
3) 亀岡栄吉, 앞의 책, p.50.
4) 김현숙(2008)「창경원 밤 벚꽃놀이와 夜桜」『한국근현대미술사학』19,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p.139-162.
5) 김해경(2011.12)「벚꽃을 통해 본 근대 행락문화의 해석」『한국전통조경학회지』29-4, 한국전통조경학회, pp.124-136. 이밖에도 竹国友康(1999)『ある日韓歴史の旅—鎮海の桜』朝日新聞社. 등이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그러나 일본에서의 벚꽃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여 일본을 상징하게 되었는지, 왜 일본인은 그토록 벚꽃을 심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고찰은 부족하다. 이에, 벚꽃과 '벚꽃 구경'문화를 이식하고자 하였던 이유를 확인하여, 식민지시대를 지나온 한국의 벚꽃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 Ⅱ. 근세의 한일 상춘문화

## 2.1 한일 상춘행위의 유사점

봄이 되면 꽃이 핀 야외로 나가 하루를 즐기는 상춘(賞春) 문화는 한일 양국에서 8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 전부터 행해진 전통적 행사였다.[6] 한일 양국은 지리적 위치와 기후조건의 면에서 비교적 같은 권역에 속한다 할 수 있으며, 비슷한 꽃이 비슷한 시기에 피고 지기에 양국의 상춘문화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7]

우선 양국의 개화시기에 관한 따른 기술을 살펴보면, 조선의 「세시기」(1795.7序) 중 "3월 3일", "상화(賞花)"라는 조목에, "도성 안팎으로 여러 곳에 꽃을 심었는데", "많은 남녀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종일토록 즐기"며 "꽃이 떨어질 때까지 늘 계속된다"고 나온다.[8]

이는 일본의 경우도 비슷해서 야나기다 구니오(柳田国男)의『세시습속어휘』(歳時習俗語彙)에서 보면, 나라현(奈良県宇智郡)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음력 3월 3일에 술과 안주를 들고 경치가 좋은 언덕에 올라 함께 하루를 보냈다고 하며, 닛코(日光) 근변에서는 3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중에 하루를 정하여 산놀이로서 꽃구경을 갔다고 한다.[9]

---

6) 한양명(2001)「화전놀이의 축제성과 문화적 의미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한국민속학』33, 한국민속학회, pp.335-358. 神崎宣武(1991)『物見遊山と日本人』講談社, p.43.

7) 한일 상춘문화를 비교한 선행연구로서 노성환(2008)「일본의 하나미와 한국의 화전놀이」『비교민속학』37, 비교민속학회, pp.137-161가 있다. 본고에서는 새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8) 조수삼(1795.7序)「세시기(추재집)」국립민속박물관편(2003)『조선대세시기1』국립민속박물관, pp.47-4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처럼 한일 양국의 상춘문화는 남녀노소가 함께 참가하고 꽃을 즐길 때에 술과 음식이 함께 하며 그 시기 또한 3월 3일부터 4월 8일 전후로, 유사한 시간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춘행사의 장소가 마을 주변, 즉 정주(定住) 환경과 자연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공간적배경의 공통점도 들 수 있다.

조선 한양의 행락공간들은 크게 성곽 주위의 산과 계곡, 그리고 한강변으로 구별된다. 특히 성곽 주위는 정주 환경의 한계선으로 익숙한 공간과 이를 벗어나는 경계부이다. 한양 성곽은 내사산(인왕산, 북악산, 낙산, 남산)을 따라 세워졌기에 상춘을 비롯한 행락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으며, 한양의 명승지 또한 이 내사산과 북한산, 도봉산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10]

일본 에도의 행락공간은 우에노(上野), 아스카야마(飛鳥山), 고텐야마(御殿山), 스미다강둑(墨田川堤)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중심가인 니혼바시(日本橋)를 기준으로 우에노는 북쪽, 아스카야마는 북서쪽, 고텐야마는 남쪽, 스마다강은 동쪽에 있어 에도를 둘러싸듯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쟁 대비용으로 만들었던 시노바즈 연못(不忍池)을 중심으로 행락공간이 된 우에노를 제외하고서는, 아스카야마와 고텐야마, 스미다 강둑은 니혼바시를 중심으로 약 7~10km 떨어져 있었으며, 이는 도시와 농촌의 경계선이기도 하였다. 도보생활이었던 당시, 주된 명승지들은 시민들이 도보로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약 1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국 모두 특정한 꽃만이 아닌 다양한 꽃을 즐겼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득공의 『경도잡지』(京都雜志, 1800경) "유상(遊賞)"에는 "필운대 행화(杏花), 북둔의 복사꽃, 흥인문 밖 버들, 천연정(天然亭)의 연꽃, 삼청동 탕춘대(蕩春臺)의 수석(水石)이 술과 노래를 즐기려는 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11] 라고 있어 살구꽃, 복숭아꽃, 버들, 연꽃 등 다양한 종류의 화목(花木)이 등장한다. 유득공의 아들 유본예의 『한경지략』(韓京識略, 1830序)에서도 도화동・송동・북사동은 복숭아꽃, 천연정은 연꽃의 명소로 꼽고 있으나, 나머지는 필운대

9) 柳田国男(1939)『歳時習俗語彙』民間伝承の会, pp.396-419.
10) 황기원(2009)『한국 행락문화의 변천과정』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143-146.
11) 유득공(1800경)「京都雜志」국립민속박물관편(2007)『조선대세시기3』국립민속박물관, p.5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의 "갖가지 꽃나무를 찾는다(尋種花木)"에서 보이듯, 꽃과 나무가 다양하게 어우러진 풍경을 즐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12]

일본의 경우, 『에도 명소 꽃 달력』(江戸名所花暦, 1827)에 의하면 벚꽃, 매화, 동백, 복숭아, 등꽃, 철쭉, 모란 등 총 45개의 꽃과 나무가 열거되어 있으며, 사시사철 꽃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13]

그런데 상기의 한양 지리지에는 복숭아꽃 명소들이 많이 거론되어있다. 그 이유는 과실(果實)을 위한 상품작물로서 사람들이 많이 심었기 때문이다. 『한경지략』 '북사동'에 "맑은 시냇물 양 언덕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숭아를 심어서 생업을 하므로 매년 늦은 봄에 놀러 오는 사람들의 수레와 말들이 산골짜기를 메운다."[14]라고 있듯이, 복숭아밭은 주민들의 생업의 장인 동시에 행락장소이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대량으로 재배되는 상품작물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꽃의 명소로 알려지며 도시민에게 행락의 장소로 인식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예가 매림(梅林)과 도림(桃林)이었다.[15]

이처럼 한일 양국에서 복숭아꽃이나 매화꽃의 명소가 생겨난 것은 상품작물의 대량 재배의 결과였으며, 상업적 활동이 그 배경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2 양국의 벚꽃에 대한 인식

상춘의 방식과 시기, 장소의 위치와 즐기는 꽃의 다양함 등 상춘문화에 많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벚꽃에 대한 두 나라의 인식은 차이를 보인다.

일본인은 예로부터 벚꽃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고킨와카슈』(古今和歌集, 10세기 초)를 비롯한 가집(歌集)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꽃이 벚꽃이다. 헤이안(平安)시대 이후 여러 종류의 꽃의 명소가 존재하는 '꽃의 수도(花の都)' 교토(京

12) 유본예(1830序), 서울특별시사편집위원회편(2000)『한경지략(제2판)』[서울특별시], pp.276-283.
13) 岡山鳥(1827), 今井金吾校訂(1973)『江戸名所花暦』八坂書房, pp.3-4.
14) 유본예, 앞의 책, p.279.
15) 小野佐和子(1992.3)「江戸時代の都市と行楽」『南九州大学園芸学部研究報告 自然科学・人文社会科学』22, 南九州大学, p.63-65.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都)의 명소를 기록한『히나미키지』(日次紀事, 1676)에서도 벚꽃 명소 수는 108개로, 다음으로 많은 철쭉의 9개소를 크게 압도한다.[16]

에도에서도 벚꽃의 인기는 다른 꽃 보다 월등하여 교토의 기요미즈데라(清水寺)를 모델로 삼아 1631년에 건립한 우에노의 간에이지(寛永寺)의 경내(境内)는 에도 초기부터 벚꽃의 명소로서 유명했다. 꽃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친 "막(幕)이 많을 때는 300여 있고, 적을 때는 200여있"으며,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혼잡함이 대단"했다고 한다.[17]

이렇듯 일본인이 벚꽃을 다른 꽃들보다 훨씬 좋아하였던 이유에 대한 해답은 무사이자 학자인 오모리 고안(大森固庵)의 기행문에서 찾을 수 있다. 고안은 1683년, 에도를 출발하여 관서(上方) 지방을 도는 130일의 여행을 하고『지구사 일기』(千種日記)를 남겼는데, 저자는 3월 26일에 교토에 도착하면서부터 벚꽃구경을 겸하여 구경을 다닌다. 30일에는 닌나지(仁和寺)에서 쉬면서, "지금 이런 곳에 와서 교토 벚꽃의 끝 무렵을 보고 있는" 것을 흡족해하며, 벚꽃에 대한 감개에 빠져 다음과 같은 소위 '벚꽃론(論)'을 기술한다.

> 대체로 다른 나무의 꽃들은 벚꽃처럼 남김없이 떨어져버리는 것이 아니지만 이 꽃처럼 인기가 높지 않다.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이지 벚꽃은'(散ればこそいとど桜は)이라 읊은 것도 정말 이치에 맞다. 소기(宗祇)가 79세 봄에 '끝마저도 닮은 꽃이 없는 벚꽃이구나'(かぎりさへ似たる花なき桜かな)라고 읊은 것도 일제히 떨어지는 꽃의 풍취가 있어서 일 것이다. 다시 회상하며, '전혀 벚꽃이 없었다면'(絶えて桜のなかりせば) 하면서 바라보며, 특히 꽃이 많은 곳 앞의 당(堂)에서 쉬고 있었다.[18]

다른 꽃들과 차별화되는 벚꽃의 특징을 꽃이 "남김없이 떨어져버리는" 점에서 찾고, 이러한 특징을 포착한 소기의 홋쿠(発句)와 와카(和歌) 2수를 인용하고 있다. 와카 2수는『이세 모노가타리』(伊勢物語, 10세기)에 등장하는 것인데,

16) 小野佐和子(1992.3) 앞의 논문, p.55.
17) 戸田茂睡(1683), 国書刊行会編(1915)『戸田茂睡全集』国書刊行会, pp.284-285. 林忠・林恕共撰, 国書刊行会編(1920)『本朝通鑑』第16, 国書刊行会, p.208.
18) 大森固庵(1683), 鈴木棠三編(1984)『千種日記』上, 古典文庫449, 古典文庫, pp.101-1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아리와라노 나리히라(在原業平)가 벚꽃을 보며 마지막에 인용된 "세상에 벚꽃이 전혀 없었더라면 (벚꽃이 떨어질까 염려하는 일이 없어) 봄의 마음은 평온할 것이다"라고 하니, 다른 사람이 그것에 응하듯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이지 벚꽃은 근사한 것이다. 덧없는 세상에서 무엇이 영원하리"라고 읊었다는 이야기이다.[19] 고안은 불교의 무상관(無常觀)의 메타포로서 벚꽃을 연결시키고 있으며, 무상관은 당시 일본의 무사사회의 중요한 정서였기에, 벚꽃이 다른 꽃보다 더욱 사랑을 받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물론 벚꽃과 불교의 무상관을 연결시킨 것은 일본인의 임의적 상징이었으며, 같은 불교국가였던 고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징이었으므로, 한반도에서는 벚꽃의 임의적인 식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벚나무는 그리 친숙한 나무는 아니었다. 1655년 조선통신사로서 일본에 건너간 남용익은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는 벚나무가 있으니"[20] 라며, 당시 조선에 없는 나무로서 벚나무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무하였던 것은 아니어서, 앞서 인용한『사계의 조선』에서도 "군궁용(軍弓用)으로 가오리나 우이동에 식재"했다고 쓰여 있듯이 궁재(弓材)로서 심어진 바는 있었던 모양이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우이동에 벚나무를 심은 사실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었고, 다만 가전(家傳)의 형태로 두 가지 설이 있었다. 하나는 이경여(1585-1657) 가문에 전해지는, '효종이 북벌(北伐)을 위해 화살용으로 우이동 지역에 10만 그루의 벚꽃을 키울 것을 비밀리에 요청했었다'는 내용이며, 또 하나는 홍양호 집안에 전해 내려온, '당시 우이동에 살던 홍양호가 1763년 통신사로 발탁된 친구에게 의뢰하여 일본으로부터 묘목 수백 수를 사들여 이식했다'는 내용이다.[21]

어느 쪽의 설을 택하든 조선에서의 벚나무 식수 목적이 꽃의 감상에 있지 않았음은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한시나 민요 속에 벚꽃을 소재로 한 것은 한 편도

19) 福井貞助 校注・訳(1994)『竹取物語 [外]』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12, 小学館, pp.184-185.
20) 남용익(1655)『聞見別録』민족문화추진회편(1975)『(국역)해행총재』6, 민족문화추진회, pp.17, 93.
21) 이경여 가전은 이상주(2012)『왕의 영혼, 조선의 비밀을 말하다 = 宗廟野史』다음생각, pp.162-168, 홍양호 가전은 松田甲(1922.11)「桜を牛耳洞に移植せし洪良浩」『朝鮮』92호, 조선총독부, pp.85-93에 상세하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없고, 벚꽃이 심어진 식민지시대 이후에도 벚꽃을 소재로 한 문학이나 미술작품은 매우 희소하다.[22]

불교의 무상관을 상징하는 꽃으로 사랑받던 벚꽃은, 유교 국가였으며 불교를 배척하던 조선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와 상징체계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단지 활을 만들 때에 유용한 실용적인 목재로서만 존재하였고, 과실수로서도 버찌는 복숭아보다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조선에서의 벚꽃은 일본만큼의 의미를 지닐 수 없는 꽃이었다.

## 2.3 일본에 있어서의 벚꽃의 상업화

일본인이 벚나무를 대규모로 군집시켜 식수하는 전통은 전국시대(戦国時代)에서 근세 초기에 걸쳐서, 무사였던 일본의 성주들이 영지를 새로 정비하면서 대규모로 벚나무를 심었던 것에서 유래한다. 성주들이 자신의 영지를 정비하면서 기준으로 삼았던 도시는 다름 아닌 풍아(風雅)의 전통을 나타내는 '꽃의 수도' 교토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토에 가장 많이 심어져 있던 꽃은 벚꽃이었다.

호소카와 다다오키(細川忠興)는 1602년 고쿠라(小倉)에 신성(新城)과 조카마치(城下町) 건설을 시작, 성 남쪽 도쿠리키산(徳力山)에 교토 아라시야마(嵐山)의 벚꽃 수천 수를 이식하여 아라시야마처럼 꾸몄다. 이 벚꽃 이식은 조카마치를 문화도시 교토와 비견할만한 곳으로 드높이려는 의사표현이었으며, 따라서 벚꽃은 교토와 같은 도시의 번영을 기원하며 선택된 것이었다.

다다오키와 같은 조카마치 조성 방식은 '작은 교토(小京都)' 건설이라 불리며, 전국시대에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 특히 오우치씨(大内氏)의 야마구치(山口)가 유명하였는데, 지형과 시가지 설계를 교토와 유사하게 하고, 기온(祇園), 기요미즈 등의 사사(寺社)까지 들여와 교토를 그대로 옮겨 온 것 같았다고 한다. 에도의 우에노 간에이지도 교토의 기요미즈데라를 모방하여 세워진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또한 다다오키가 모델로 삼은 아라시야마는 예로부터 와카에 읊어진 우타마

22) 김현숙, 앞의 논문, p.15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쿠라(歌枕)이기도 한데, 교토가 아니더라도 유명한 우타마쿠라의 꽃을 이식함으로써 명소를 재현하는 시도 역시 문화를 이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도쿠가와 미쓰쿠니(徳川光圀)는 1696년, 미토성(水戸城) 서남쪽에 흐르는 강의 양 기슭 1리(里)간에 마카베(真壁)의 사쿠라가와(桜川)로부터 벚나무 묘목을 구해 와서 이식, 똑같이 사쿠라가와라고 이름을 붙였다. 마카베는 '서쪽의 요시노 동쪽의 사쿠라가와'라 불리던 동일본(東日本) 제일의 벚꽃 명소로, 기노 쓰라유키(紀貫之)도 읊었던 우타마쿠라이다. 그리고 히로세(広瀬)의 사쿠라노(桜野)는 전국시대 말 성주가 성을 세웠을 즈음, 조망을 위해 요시노에서 벚꽃을 가져와 이식한 장소라고 전해진다.[23]

벚꽃은 이러한 영주들의 행위를 통해 불교의 무상관만이 아니라 풍아와 번영, 발전된 문화를 상징하게 된다.

위와 같은 위정자에 의한 벚나무 식수는 규모가 크고 각각의 생활권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새로운 벚꽃 감상 방식을 낳게 된다. 예를 들어, 우에노가 꽃의 명소로서 소문이 나기 전의 에도에서는 우시고메(牛込)의 우에몬자쿠라(右衛門桜)나 시부야(渋谷)의 금왕앵(金王桜)처럼 전설적 유래를 갖는 명목(名木)의 감상이 꽃구경의 주류였다. 이에 비해 우에노의 벚꽃은 수천그루를 헤아릴 정도로 대규모라는 특징이 있다. 이제 벚꽃은 꽃 한송이한송이의 아름다움보다 구름이나 눈에 비유되는 전체로서 포착되는 아름다움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24]

메이레키의 대화재(明暦の大火, 1657) 이후, 에도의 시가지도 늘어난 인구에 맞게 재조성되어 도시는 확대되고 경제적으로도 호황을 누려 유락(遊樂)문화도 발전하던 때였다. 단지 몇 그루의 명목으로는 에도의 수많은 행락자를 감당할 수 없었을 터, 시민들은 벚꽃이 많이 심어진 우에노로 몰려 단체 꽃구경을 즐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에도 17세기 말까지 에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1695년에는 약 80만 내외가 되었다.[25] 1705년 봄에는 호에이 오카게마이리(宝永の御蔭参り)가 일

23) 이상, '작은 교토'와 '우타마쿠라' 이식에 관해서는 주로 小野佐和子, 앞의 논문, pp.82, 156-157을 참고하여 정리했다.
24) 小野佐和子, 앞의 논문, p.81.
25) 内藤昌(1966)『江戸と江戸城』鹿島出版会, p.134.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어, 362만 명이 이세로 몰려들었을 정도로 나들이 문화도 성숙했다.[26] 1718년 11월에는 류큐(琉球) 사절단이, 이듬해 10월에는 조선통신사가 에도에 다녀갔다.[27] 이는 1716년에 새로 쇼군이 된 요시무네를 위한 경하사절이었는데, 쇄국하의 일본에서 외국인의 도래는 항상 큰 화젯거리가 되었으며 시민들에게는 유락 욕구를 채워주는 이벤트였다.

이런 축제 분위기가 끝나갈 무렵인 1720년경, 우에노만으로는 시민들의 행락문화를 감당할 수 없음을 인식한 요시무네는 스미다강, 아스카야마, 고텐야마, 고가네이 등에 대규모 벚나무 식수를 시작, 시민들을 위한 행락장소 정비에 나선다.[28] 요시무네가 새로 조성한 이들 행락장소는 에도의 벚꽃 명소로서 순조롭게 성장해 나갔으며, 시민들은 벚꽃 철이면 날마다 명소들을 전전하며 즐기는 문화를 누리게 된다.[29]

한편 한양에서도 왕명으로 인공적인 자연경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행락장소로 성장한 예가 존재한다. 각각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밖에 위치하던 동지(東池), 남지, 서지의 세 연못은 한양의 화기(火氣)를 막기 위해 태종 때 만든 것인데, 연꽃이 무성하여 한양 시민의 연꽃 구경 장소가 되었다.[30] 또 『한경지략』에 의하면 한양은 동쪽이 약간 낮기 때문에 동쪽의 허함을 막기 위해 조산(造山)을 만들고 버들을 많이 심었는데, 봄이 되면 풍치가 볼만해서 성안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었다고 한다.[31] 그러나 한양의 경우는 인공적으로 자연을 가꾸는 목적이 풍수지리에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행락장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발전된 문화를 따라잡기 위해 대중적인 행락을 위해 대규모 식수가 이루어졌던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의 중심이었던 교토를 모방하여 일본 각지에 광활한 벚꽃명소가 마련되고, 단체 벚꽃구경이 성행하자, 벚꽃의 '집객력'(集客力) 즉, 사람들을 끌어 모으

26) 金森敦子(2004)『伊勢詣と江戸の旅』文芸春秋, p.24.
27) 旅の文化研究所(2011)『旅と観光の年表』河出書房新社, p.54.
28)「有徳院殿御実紀附録」16, 経済雑誌社編(1905)『国史大系』14巻, 経済雑誌社, p.351. 小野良平(1988.3)「飛鳥山にみる名所づくりの思想」『造園雑誌』51-5, 社団法人日本造園学会, pp.14-16.
29) 津村正恭(1800경)「花見の日記」, 板坂耀子校訂(1991)『近世紀行集成』国書刊行会, p.456. 이 밖에도 大田南畝(1792)「花見の日記」등이 있다.
30) 황기원, 앞의 책, pp.145, 165.
31) 유본예, 앞의 책, p.1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는 힘을 이용하려고 대규모 식수를 행하는 사례들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 가와고에번(川越藩)은 1846년, 수해(水害)로 고뇌하던 가와시마령(河島領)에 제방을 축조하여 벚꽃 묘목 천 수를 심었다. 이는 꽃구경 사람들이 모여들어 제방을 밟아 굳건히 해줄 것을 기대한 처사였다.[32]

더 나아가 집객에서 생기는 경제 효과를 노린 식수도 행해졌다. 오사카 봉행소(大坂奉行所)는 1838년, 요도강(淀川)의 지류 네코마강(猫間川)을 정비하고 강가에 벚꽃과 단풍나무를 심어 춘추의 미관을 만들었다. 이 전 해인 1837년 오시오 헤이하치로의 난(大塩平八郎の乱)이 일어났었기에 흉흉해진 민심을 위로할 겸, 강을 정비하여 불편했던 운송을 해소시키고, 강둑에 벚꽃을 심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번화가로 만들어 주민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다.[33]

민간에서 집객을 위해 벚꽃을 심은 예로는 에도의 유곽인 요시와라(吉原)를 들 수 있다.[34] 요시와라의 중심 거리인 나카노초(仲之町)에 정원사가 천 그루에 달하는 규모의 벚나무를 3월 중순에 이식하여 꽃이 지면 다시 뽑아 가는 사치스러운 행사로 등불에 비춰진 꽃이 유곽의 독특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셀 수 없을 정도의 손님을 끌어 모았다고 한다. 1741년, 요시와라의 한 가게 앞에 화분에 핀 벚꽃을 장식한 것이 시초였는데, 이것이 평판이 좋아 가게들이 협의하여 이듬해부터는 화분이 아니라 아예 이식을 하게 된 것이며, 관동대지진(1923)으로 요시와라가 큰 타격을 입기 전까지 계속된 명물이었다.

이 밖에도 사하라 기쿠우(佐原菊塢)는 1801~1805년경 본인의 개인 정원인 '신매화저택(新梅屋敷)'을 개방하여 원내에서 매실 절임(梅干)과 도자기(隅田川焼) 등을 팔았는데, 스미다강둑으로부터 들어오는 길목에 벚나무 950수를 심어 꽃구경 손님을 유치하는 등, 꽃구경의 경제 효과에 주목한 개인 사업가도 등장하기에 이른다.[35]

일본에서의 벚꽃은 문화적 상징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는 꽃으로 인식

32) 小野佐和子, 앞의 논문, p.159.
33) 小野佐和子, 앞의 논문, p.63.
34) 요시와라에 대해서는 주로 斎藤月岑(1838), 朝倉治彦校注(1970)『東都歳事記 1』東洋文庫 159, 平凡社, pp.218-219, 若月紫蘭(1911), 朝倉治彦校注(1968)『東京年中行事 1』東洋文庫 106, 平凡社, p.206을 참고했다.
35) 花屋敷菊塢(1828)『墨水遊覧誌』, 大野広城編(1916)『江戸叢書』巻1, 江戸叢書刊行会, pp.16-1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 Ⅲ. 벚꽃과 일본제국주의

### 3.1 소메이요시노(染井吉野)

풍요와 번영, 고급문화를 상징하고 경제적 이익까지 함께 가져오는 벚꽃은, 메이지에 들어서 개발된 '소메이요시노(染井吉野)'라고 하는 새로운 벚꽃을 통해 더욱 더 많이 식수되기 시작한다. 소메이요시노는 메이지 초에 도쿄 소메이(染井, 現豊島区巣鴨)의 정원사가 팔기 시작한 벚꽃 품종인데,[36] 잎이 섞이지 않고 꽃만 밀집하여 펴서 화려하고, 성장이 빨라 10년 만에 훌륭한 꽃을 볼 수 있으며, 번식은 접목(接木)으로 용이하고 값이 저렴했다.[37] 이러한 특징은 계획 식수와 전체로서 벚꽃을 감상할 때 큰 장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수령이 60년 정도 밖에 안 되고, 병충해에 약하며, 본래 표준이었던 산벚나무(山桜)와 외관도 많이 달라서 학자나 원예가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었으나,[38] 잘 자라고 화려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근세까지의 산벚나무 경관이 사라지고 메이지 중반에는 "일본의 봄 경관이 일변(一変)"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39] 나라에서는 경관 미화를 위해 가로수로 심었고,[40]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며 유지들이 심는 경우도 많았다.[41]

1889년 5월 1일자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기사 「불경기였던 스자키(洲

36) 『日本大百科全書(ニッポニカ)』 小学館, 'ソメイヨシノ' 항목.
37) 高木博志(2006) 「桜とナショナリズム—日清戦争以後のソメイヨシノの植樹—」 『近代天皇制と古都』 岩波書店, p.250.
38) 矢野竜渓(1915) 「山桜と吉野桜」 『出たらめの記』 縮刷名著叢書15, 東亜堂書房, pp.311-313, 三好学講(1916.4.13-19) 「吉野の桜」 1~6, 『大阪朝日新聞』 등.
39) 高木博志, 앞의 논문, pp.249-251.
40) 「向ケ岡射的場に警視庁が桜200本植樹」(1882.3.3), 「数奇屋橋門から神田橋門まで公園並みに柳や桜を植え付けへ」(1883.11.8), 「公園式の新橋　四谷見附橋成る　桜並木の散歩道」(1913.10.1) 등, 모두 『読売新聞』.
41) 「赤坂門外へ有志の植樹願い出を許可」(1883.4.4), 「綾瀬川岸に桜、数百株を植樹元木村の有志」(1887.4.23), 「神田区内の有志が万世橋に桜植樹を出願」(1905.3.14) 등, 모두 『読売新聞』.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崎)의 유곽, 벤텐초(弁天町)의 벚꽃 개화와 함께 손님 수 회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벚꽃의 집객력은 메이지에 들어서도 여전했다. 시나가와(品川), 네즈(根津), 아사쿠사(浅草) 등 유곽들은 물론이고,[42] 나가사키(長崎) 스와신사(諏訪神社), 미나미다마(南多摩)의 송련사(松蓮寺), 간다신사(神田明神), 가와고에기타인(川越喜多院) 등 사사(寺社)도 사람을 모으기 위해 벚나무를 심었다.[43] 세이요켄(精養軒), 고요칸(紅葉館), 가와진(川甚) 등 고급요정은 구경꾼들이 몰릴 정도로 아름답게 벚꽃을 가꾸었으며,[44] 하코네(箱根)의 미카와야(三河屋), 도쿄의 제국 호텔(帝国ホテル) 등의 숙박업소도 손님 유치의 한 방편으로 벚꽃을 이용했다.[45]

선전을 위해 벚꽃 때에 맞추어 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부(甲武) 철도는 벚꽃이 만개할 즈음에 개업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46] 하치오지(八王子) 철도는 개업 전 고가네이(小金井) 벚꽃 철에 1주일간 무료 운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고를 겸하였다.[47] 1911년 4월 초에 행해진 니혼바시 개교식(日本橋開橋式) 때는 인근 상가에서 40그루의 벚나무를 심었는데, 벚꽃이 피기에는 이른 시기였기 때문인지,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나무마다 3천 송이에 달하는 벚꽃 조화(造花)를 매달았다. 조화에는 비와 이슬을 견디도록 초를 발랐으며, 신기한 광경에 구경꾼이 끊이지 않아 통행을 통제해야할 정도였다고 한다.[48] 개교식 당일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49]

---

42)「不景気だった洲崎の遊郭、弁天町の八重桜開花とともに客足回復」(1889.5.1).「昨年、品川の貸座敷が植えた桜並木大半が枯れ、植え直し」(1880.2.15),「根津神社境内に桜の植樹　地元貸座敷業者が献納」(1880.3.27),「浅草の地主たちが町の両側へ柳・桜を植樹」(1883.4.7),「東京・洲崎遊郭の有志が、枯死した梅樹の後に桜樹の植樹を計画」(1891.3.13) 등, 모두『読売新聞』.

43)「長崎の諏訪神社境内にサクラの植樹計画　料理茶屋や楊弓場もそのうちに」(1876.4.1),「武州南多摩の松蓮寺に、桜、梅など２万本を植樹」(1887.3.1),「神田明神境内へ桜植樹　有志が数十本奉納」(1887.3.6),「川越喜多院の桜が満開　開帳で花見客を誘う」(1896.4.8) 등, 모두『読売新聞』.

44)「上野精養軒が庭内に700株のツツジを植樹、桜とハスの花の間の観賞用」(1884.3.8),「紅葉館の桜が満開　朝から暮れまで見物客絶えず」(1888.4.22),「料理屋の庭で季節はずれの桜が満開　珍しさに外国人客ら枝を折る」(1888.10.13) 등, 모두『読売新聞』.

45)「［小消息］箱根温泉の桜」(1912.4.3),「一夜のうちに桜爛漫　外国人客への珍土産　帝国ホテルで」(1937.3.22) 등, 모두『読売新聞』.

46)「甲武鉄道の新宿−立川間完成、開業式は桜満開の21日を目指し準備中」(1889.4.7)『読売新聞』.

47)「八王子鉄道が開業前に、小金井の桜が見ごろの1週間を無料運転」(1889.4.10)『読売新聞』.

48)「日本橋開橋式準備　徳川慶喜公が渡り初めほか」(1911.3.16),「日本橋開橋式近づく　通行取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산벚나무에서 소메이요시노로 벚꽃의 품종은 바뀌었으나, 메이지기의 일본에 있어서 벚꽃을 심는 행위는 근세 초기에 전국의 성주들이 교토와 같은 번영을 기원하며 자신의 영지에 벚나무를 심기 시작한 이래로, 근세 후기에 벚꽃의 경제적 효과 또한 기대하며 식수하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 3.2 국화(国花)로서의 벚꽃

소메이요시노를 통해 대규모의 벚나무 식수가 더욱 가속화 되고, 일본의 봄이 벚꽃 일색으로 물들게 될 무렵, 일본은 청일전쟁을 치르게 된다. 일본이 전시체제에 들어서는 청일전쟁 즈음부터 벚꽃은 일본의 꽃이라는 국화론(国花論)이 전개되기 시작한다.[50] '벚꽃= 국화론'은 이미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던 1892년 4월의 자유당 의원이었던 노구치 가쓰이치(野口勝一)의 『풍속화보』(風俗画報)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일 전쟁 후에는 잡지 『태양』, 『일본인』 등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1896년에는 국수주의자로 알려진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가 본인이 창간한 잡지 『일본인』의 표지를 벚꽃으로 바꾸었으며, 벚꽃에서 일본의 "굳은 절개와 지조"를 찾는 「벚꽃」(桜の花)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러한 벚꽃론은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는 청일전쟁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기념수(記念樹)를 심어야 하며, 수종은 "고래부터 우리 일본혼(日本魂)의 표상"인 벚꽃이 가장 적당하다는 식으로 나아가게 된다.[51]

지금까지 확인한 바와 같이 벚꽃은 무사사회에서 불교의 무상관의 메타포로서 중요시되고, 번영과 선진문화의 상징이었을 뿐, "일본혼의 표상"이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벚꽃이 "일본혼의 표상"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타국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벚나무가 이미 일본에 심어져 있어 무리 없이 연상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벚꽃은 일본 그 자체를

---

締と桜樹植付」(1911.3.31) 등, 모두 『読売新聞』.

49) 「日本橋開橋式の大混乱　数万の群衆式場を押し破りて多くの重軽傷者を生ず」(1911.4.5) 『読売新聞』.

50) 이하 벚꽃=국화론에 대해서는 高木博志, 앞의 논문, pp.252-253을 토대로 정리했다.

51) 北村小次郎(1894.12) 「征清紀念樹を植ゆべし」 『教育時論』 348, 高木博志, 앞의 논문, p.253에서 재인용.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상징하게 된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념 아래 청일전쟁 후에는 더욱 많은 수의 벚나무가 심어져 1903년 당시 도쿄에서는 사사(寺社), 공원, 제방, 길가는 물론 야마노테(山の手)에서는 "틈만 있으면 벚꽃이 없는 곳이 없"는 상태였다.[52] 벚나무 식수는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어 1916년에는 "벚꽃이 전국 곳곳에 심어져, 들에도 산에도 골짜기에도 가로수에도, 혹은 신사 불각 경내 등 어디에 가도, 훌륭한 벚꽃을 볼 수 있는" 경관이 된다.[53]

벚꽃이 일본을 상징하게 되었어도, 교토문화로 대변되는 선진문화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를 통해 강대국이라 여겨졌던 중국과 러시아보다 일본이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얻었으며, 벚꽃은 이러한 선진문화를 가진 일본의 상징으로 확장되어, 이는 일본의 벚나무를 해외에 식수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1897년, 위해위(威海衛)를 지키던 여단장(旅団長)은 임기가 끝날 무렵, 히로시마(広島)의 본인 저택에 심어져 있던 벚나무를 송부 받아, 위해위에 심어 놓고 떠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벚꽃을) 기념물로서 남기어 오래토록 우리 군대의 위신을 청나라 민중에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다.[54] 벚꽃을 선진일본문화의 상징으로 여겼던 당시 일본인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또 1905년 4월에는 무코지마(向島)의 요정 미야코(みやこ)에 스미다 강둑의 벚나무 묘목 26그루를 북만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는 1년 전 임무를 띠고 떠나기 전에 미야코에서 마지막 회동을 가졌던 26명의 지사(志士) 중 한 명이 "기념을 위해" 심으려는 것이었다.[55] 이들은 본인이 왔다간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보다 우월한 선진일본문화의 상징인 벚나무를 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1905년부터는 러일전쟁 승리기념으로서 전적(戦跡)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벚나무 식수가 행해지기 시작한다. 만주지방은 일반적으로 수목이 모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소나무 삼나무 등의 묘목도 이

52) 野口勝一(1903)「何処桜花好」『風俗画報』167, 高木博志, 앞의 논문, p.251에서 재인용.
53) 三好学, 앞의 기사, (1).
54)「威海衛に記念の桜樹　占領軍交代を機に塩屋第二旅団長が植える」(1897.4.9)『読売新聞』.
55)「墨堤の桜樹を満州に植えん」(1905.4.7)『読売新聞』.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식할 계획이었으나, 특히 벚나무를 기념수로서 심는 작업이 선행되었다.[56] 구체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조국의 정신을 번득이게 하"기 위하여 여순구(旅順口)에 벚나무 수천 수를 식수하고,[57] "일본인의 발전"을 염원하며 안동진강산(安東鎮江山)에도 천 수를 식수하였다.[58]

벚꽃은 타국보다 강하고 우월한 일본의 상징이 되었으며, 타국에서 일본인의 손으로 인공적으로 식수된 벚꽃을 보는 것은 일본인이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는 전술한 진강산의 식수를 담당한 승려의 "벚꽃이 없으면 일본인의 발전이 저해되리라 생각하여 가장 먼저 벚꽃을 심기로 결심했다"[59]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벚꽃이 일본을 상징한다면 벚꽃이 있는 곳은 일본이 된다. 확보한 식민지에 벚꽃이 없다면 아직 완전한 일본영토라 할 수 없다. 누노무라 시게지로(布村重次郎)는 1933년, 기상관측을 위한 비행을 한 후 『[만선비행의 여행] 제비처럼』([滿鮮飛行の旅] 燕のように)을 남기는데, 마지막에 "벚꽃과 우리 국민성"(桜花と吾が国民性)이라는 글로 기행문을 마무리 짓고 있다. 이하 전문(全文)을 인용한다.

> 다음으로 나는 「벚꽃과 국민성」이라는 것을 이번만큼 통렬하게 느낀 적이 없다. 만주에서는 안동(安東)이나 대련(大連)지방에는 여기저기 벚꽃이 있는데 봉천(奉天)이나 신경(新京)에는 벚꽃이 없다… 불론 북만주에는 있을 리 없다… 이는 물론 겨울에 너무나도 혹한이기 때문이라 생각되지만 최근 원예학과 과수학(果樹学)이 상당히 진보했다고 들었는데 저런 동한(冬寒) 지방에도 벚꽃을 이식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한다… 원래 우리의 국민성은 벚꽃과는 밀접하여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여서, 얼마나 우리 국민이 벚꽃의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벚꽃 없이는 얼마나 쓸쓸한 인생인지를 여실히 느끼게 하는 여러 사실이 있다. 일찍이 압록강 앞에 절을 세운 선종 스님이 「벚꽃이 없는 곳은 일본인은 좌불안석이 된다…」며 절의 정원에

56) 「旅順へ桜樹を移植　本邦から数千本、日暮里の万花園へ輸送注文」(1905.4.21) 『読売新聞』.
57) 画報生(1905)「旅順桜樹移植に就て」『風俗画報』318, 高木博志, 앞의 논문, p.252에서 재인용.
58) 細野南岳(1926.11) 「満鮮行脚(5)」『正法輪』第611号, 正法輪社, p.8, 高媛(2012.12) 「満洲における桜の名所「鎮江山公園」の誕生」『Journal of Global Media Studies : gms』11, 駒沢大学グローバル・メディア・スタディーズ学部, p.13에서 재인용.
59) 위와 같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벚꽃을 많이 심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만주는 일본의 생명선이다… 일본인은 줄줄이 만주로 가서 이 생명선을 지키고 배양해야 한다… 그곳에 벚꽃이 없는 것은 왠지 쓸쓸한 일이다. 어떻게든 최신 학리(学理)와 기술을 갖고 북만주에도 벚꽃을 이식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나 이는 혹은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60)

소메이요시노를 비롯한 일본 벚나무는 특히 만주나 조선의 추운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사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식에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누노무라는 그 시행착오 과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북만주에도 벚꽃을 이식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토로한다. "여기저기 벚꽃이 있는" 곳을 비행하다가 북만주에서 벚꽃이 보이지 않자 "벚꽃 없이는 얼마나 쓸쓸한" 지를 여실히 체감한 것이었다.

또 "일본인은 줄줄이 만주로 가서 이 생명선을 지키고 배양해야 한다… 그곳에 벚꽃이 없는 것은 왠지 쓸쓸한 일이다."라고 벚꽃이 피는 곳 까지가 일본의 영토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영토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민지에 벚나무를 심는 행위는 제3국에도 알려져 있었다. 1909년 11월 28일자 『요미우리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 이웃의 소문
>
> 일찍이 도쿄시로부터 미국 대통령 태프트군에게 보낸 벚나무 2천 그루는 이번에 실업단의 일원으로서 도미한 흥농원주(興農園主) 농학사 와타세 도라지로(渡瀬寅次郎)군이 그 식수 일체를 위탁받았다. ▲그런데 미국인이 믿는 바에 의하면 일본 벚꽃은 일종의 미묘한 특색을 지니고 있어서 만약 이것을 타국에 식수했을 때 그 벚꽃이 일본과 같은 향색으로 피어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일본에게 먹힌다고 한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와타세군을 붙잡고 정말입니까, 하며 어디까지나 진지하다. ▲그리하여 와타세군은 "묘목은 일본 것이라도 미국 대륙으로 옮기면 자연히 미국적 특색을 띤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일본에 먹힐 걱정은 없군, 하며 모두 안심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60) 布村重次郎(1933)『(満鮮飛行の旅)燕のように』大邱大橋書店, pp.82-8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일본 벚꽃을 타국에 이식했을 때 일본처럼 피어나면 그 나라는 일본에게 정복당한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돌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세계에도 벚꽃을 제국주의 일본의 상징으로 여기는 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3 재조일본인의 식수활동 -벚나무와 소나무를 중심으로-

『[최근] 조선요람』([最近]朝鮮要覧, 1909)의 「식림의 경영」(植林の経営)[61]에 의하면, 민둥산이 많던 조선 임야를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계획으로 우선 경성의 백운동, 평양의 모란대 두 곳에 모범림(模範林)을 설치하여 식수한 것이 1907년 봄이라고 한다. 모범림에 가장 많이 심은 것은 소나무 및 상수리나무 등이며, 벚나무, 단풍나무 등도 기타 잡목으로서 함께 심었다고 나온다. 이러한 모범림 사업과 함께 시가지의 가로수나 공원 내 경관 정비도 자연히 병행되었는데, 벚나무는 재조일본인의 생활환경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심어지게 된다.

1907년부터 시작되는 조선에서의 벚나무 식수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62] 1907년에 수입한 1500그루 중 500그루를 왜성대(倭城臺)에 식수(1), 1908년 한성 내 보통학교 식수(2), 1908-9년경 창경원에 300그루(1), 1909년 마산(3), 1910년 남산(4), 1911년 목포에 100그루(4), 1912년 남산에서 한양공원에 걸쳐서 5~600그루(1), 같은 해 경운궁에 기증받은 500그루 중 250그루(5), 1915년 이천 신사(4), 1915-6년경 의주(3), 1919년 장충단(4), 1920년 한강인도교에 200그루(6), 1926년 사직단에 100여 그루(4)이다. 조선 내에서의 벚나무 식수는 해마다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100그루 이상의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식수가 벌어진 배경에는 당시 조선 내의 도시 개발 붐이 있었다. 재조일본인 수는 1890년에 7천명 정도였던 것이, 1900년에는 1만 6천명,

61) 朝鮮雑誌社編(1909)『(最近)朝鮮要覧』日韓書房(1910개판), pp.196-199.
62) (1)上田常一(1933.4.27-28)「京城の桜の来歴」上・下,『京城日報』. (2)「雑報」(1908.4.26)『皇城新聞』. (3)亀岡栄吉, 앞의 책, p.7, 51. (4)강신용, 장윤환(2004)『한국근대 도시공원사』대왕사, p.72. (5)「순종실록부록」(1912.4.7). (6)「桜樹 2百本을 한강다리 중간에 일제 심게 된다」(1920.3.31)『매일신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907년에는 6만 6천명, 1910년에는 11만 4천명, 1913년에는 14만 2천명으로, 그 수가 급증하던 때였다.[63] 특히 경성의 경우 청일전쟁중인 1894년의 848명에서 전쟁이 끝난 1895년에는 1,839명으로,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다.[64] 또한 기존의 부산, 원산, 인천, 경성의 확대와 함께 목포, 진남포, 평양 등 새로 개항, 개시(開市)한 도시들에 일본인 거류지가 조성되어 개발 러시가 이어지고 있었다.

본고 첫머리에 인용한『사계의 조선』에도 언급된 바 있었듯이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은 그들의 거주지나 그들이 개발한 지역에는 마치 영역표시를 하듯이 빠짐없이 벚나무를 식수했다. 벚나무는 원래 조선에서 눈에 띄지 않던 나무라 재조일본인 수의 단기간 급증으로 인한 집중 식수를 통해 두드러진 경관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1911년 조선에 건너와 경성, 충청남도 등지를 전전하면서 15년을 산 일본인 관리가 엮은『성상 15년』(星霜十五年, 1926)에도 다음과 같이 조선 내 벚꽃에 대한 감회가 상세하게 나와 있다.

> 벚꽃은 일본을 대표하는 꽃이다. (중략) 이를 내가 조선에서 보니, 민둥산, 황폐한 평야, 도회, 메마른 경지(耕地) 촌락에 청신한 윤기와 색체와 여유, 그리움과 장대함을 점찍는 데는 아무래도 벚꽃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 고향을 멀리 두고 조선에서 일하고 있는 모국인의 향수를 누그러뜨리고, 그 땅에 친근함을 갖게 하고 내지 연장의 싹을 끌고 와 안주(安住) 생각을 굳히는 데 벚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국화여야만 한다. (중략) 벚꽃 철에 조선을 여행한 자는 누구나 눈에 들어올 것이다. 도읍의 작은 공원, 시가지의 입구, 사사(社寺)의 경내, 학교, 충혼사(忠魂祠) 주변, 새로 열린 시장, 시골의 내지인집, 또 작은 역이나 사택 등에는 반드시 크건 작건 벚꽃이 있음을 볼 것이다. 의외라 생각되는 조선인 부락에도 이 꽃을 발견할 때가 있다. 벚꽃의 분포상태를 보고 그 지방의 내지인 거주 상황은 대충 달관할 수 있는 것이다. 변화가 없는 허름한 민가, 메말라 갈라진 논만 보아온 여행자가 벚꽃이나 재래의 살구꽃, 자두꽃 부락에 다다랐을 때의 심정은 마치 사하라 대사막에서 약간의 수목을 발견한 것과 같으리라 생각된다.[65]

63) 木村健二(1993)「在外居留民の社会活動」『膨張する帝国の人流』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 5, 岩波書店(2005年 4 刷), p.33.
64) 高崎宗司(1993)「在朝日本人と日清戦争」『膨張する帝国の人流』앞의 책, p.15.
65) 豊田鉄騎(1926)『星霜十五年』帝国地方行政学会, pp.238-23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벚꽃은 고국에 대한 "향수를 누그러뜨리고, 그 땅에 친근함을 갖게" 하는 일본 꽃이라면서 "안주 생각을 굳히는 데 벚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꽃이라고 한다. 또 조선 내에서 그 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반가운 기분이 드는 지를 열변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벚꽃 풍경을 조선 내에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벚꽃 길의 으뜸으로는 아무래도 공주산성자락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 (중략) 병합 직후 토목대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핫토리(服部) 대사가 심혈을 기울여 심은 후 벌써 십 수 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그저 만발한 벚꽃에 취해 당시의 고충을 이야기 하는 자는 거의 없다. 벚꽃을 다 심으면 꺾어가고, 벌레는 새싹을 먹어치우고 소가 밟고 가고 장난 반 뽑혀갔다. 부역 증발에 고통 받던 지방민의 증오와 한은 이 벚꽃에 쏟아졌다. 이 식수 완성은 언제였더라. 결국에는 나무 아래 보초를 세워 밤낮으로 감시했다고도 전해진다.[66]

벚나무를 심어놓으면 꺾어가고, 뽑아가고, 결국에는 나무를 지키는 보초를 세워가면서 식수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벚꽃이 피는 곳이 일본이므로 식민지에 벚꽃을 심고자 하는 일본인과 일본의 상징으로서 벚꽃을 이해하고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조선인들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글이다.

1907년 당시 조선 내 식수를 담당했던 스즈키(鈴木外次郎)의 회고록[67]에서도 평양 모란대에 장차 천황의 행궁이 세워질 것을 염원하며 벚꽃을 많이 심었는데 이들도 점점 뽑히어 1927년 현재는 겨우 몇 그루만 남은 상태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기술이 보인다. 그런데 백운동에 만든 소나무 묘목 숲만은 좋은 성적을 거두어, 오늘날에는 울창한 숲이 되었으며, 백운동 모범림이 "널리 일반 관민(官民)들에게 식림사상을 고취(鼓吹)하고 보급시킨 원인"이라고 말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에서의 소나무는, 벚나무와는 달리 그 신성성과 절의의 상징으로 귀하게 여겨져 온 나무로,[68] 백운동 모범림의 소나무 묘목을 조

66) 豊田鉄騎, 위의 책, p.240.
67) 鈴木外次郎氏談「植林思想の普及」朝鮮雑誌社編(1927)『居留民之昔物語』朝鮮二昔会事務所, pp.156-157.
68) 김호종(1996)「조선후기의 식목활동」『안동사학』2, 안동사학회, p.10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선인들이 뽑지 않은 것은 일본 관리들이 모범을 보인 식림사상이 보급되어서가 아니었으며, 소나무가 가지는 상징성에 더하여 풍수지리사상에 따라 서울 사산의 솔을 베지 말아야 한다는 규범이 있었기 때문이었다.[69] 또 조선 사람들에게 소나무는 궁궐 건축, 병선 제조를 비롯하여 집을 짓고 관을 만드는 등 활용도가 높았으며, 기근 때 소나무 잎은 기민 구제용으로 자주 이용되었으므로 더욱 중시되었던 나무였다.[70] 게다가 송림에 대해서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지방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식목활동이 전개되고 있었기에,[71] 식림이 생소한 활동도 아니었다. 다시 말해 소나무는 조선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벚나무와는 달리 뽑히지 않은 것이다.

# Ⅳ. 식민지시대 조선의 상춘문화

## 4.1. 조선의 봄

1926년 4월호『조선공론』에는「조선의 봄」(朝鮮の春)[72]이라는 특집 기사가 실려 있다. 잡지사에서 '조선의 봄'을 주제로 글을 써달라고 재조일본인 인사들에게 부탁하여, 7명의 글이 게재된 것이다. 우선 그들이 내지의 봄과 비교하여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선의 봄은 늦게 시작되고 빨리 가버린다는 점이었다. 경성중학교 교사인 우치노 겐지(内野健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저 지상의 만상(萬象)이 취한 것 같은 내지의 봄을 이 조선에서 보기까지, 그야말로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내지의 봄을 등지고 조선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이지 길게 닫힌 조선의 겨울이다. 내지의 양력 3월의 봄빛은 4월이 아니면 반도를 품지 않는다. 어쩜 이렇게도 느리게 오는 봄인지. 게다가 또 얼마나 지나가는 것도 빠른 봄인가. 피었다 하면 바라볼 틈도 없이 황급하게 가지 끝을 물리는 벚꽃

69) 김기빈(1993)『600년 서울 땅이름 이야기』살림터, p.163.
70) 김호종, 앞의 논문, pp.91-107.
71) 김무진(2011)「조선후기 식목활동에 관한 연구」『한국학논집』제4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249.
72) 内野健児ほか(1926.4)「朝鮮の春」『朝鮮公論』14-4, 朝鮮公論社, pp.41-4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조선이라서 더욱 덧없는 꽃이여. 벚꽃뿐만이 아니라 봄꽃은 모두 그러하다. 바로 신록의 계절로 옮겨간다. 겨울에서 여름이라고 하는 편이 낫다. (중략) 하지만 이 소위 백화요란(百花繚乱)의 봄으로 옮겨가려고 하기 전의 자연의 모습에도 더없이 호감이 간다. 말하자면 겨울과 봄 사이의 정서이다. 이 정서야말로 내지에서는 느끼는 일이 드문, 조선에서 가장 경험해야할 즐거움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이지 조선다운 덧없는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것이다.

기나긴 겨울을 겨우 보내고 봄이 왔다 싶으면 바로 가버리는 조선의 봄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나는 문장이다. 벚꽃을 특별히 언급하면서도 짧은 봄을 표현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그리고 아쉬움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조선의 봄의 장점을 소개한다. 꽃들이 막 피어나려고 하기 직전의 겨울과 봄 사이의 정서는 일본에서는 느끼기 힘든 조선다운 것이며, "조선에서 가장 경험해야 하는 즐거움"이라고 말이다.

직업을 구하기 위해 여름에 조선에 건너온 도스 다다야스(鳥栖忠安)는 여기저기 전전하다 다음해 3월 겨우 광주에 안착하고 첫 봄을 맞이했을 때를 회상한다. 그도 우치노처럼 봄이 시작하려는 조짐이 보일 때 "더없이 기뻤다". 다만 "이윽고 그야말로 진짜 봇물 터지듯 우르르 한꺼번에 몰려온 봄, 꽃이라는 꽃, 새싹이라는 새싹이 한꺼번에 뒤섞여 피어났을 때" 놀라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추운 나라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강렬"한 자극이라고 추천한다.

노다 간장(野田醤油) 경성지점에 근무하는 이치야마 모리오(市山盛雄)는 "나는 조선의 봄을 떠나 가끔 내지의 여행을 할 때도 있다. 그러면 말할 수 없이 고향 사모의 정이 짙어져 정말이지 평범하고 흔한 것에도 한없이 동경심을 갖게 된다."며 내지의 봄에 대한 그리움을 감추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한강변의 버들나무가 엷게 싹틀 때" 혼자 자주 산책을 나가는데 "말할 수 없이 좋아하는 일 중 하나"라고 한다. 이치야마는 "버들나무의 울창한 정서"를 조선의 봄의 장점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과 비교했을 때 조선의 봄은 짧은 기간에 꽃과 새싹이 한꺼번에 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봄 하면 바로 벚꽃을 떠올리는 일본에 비해 한국 사람들은 다양한 꽃을 연상한다. 실제로 1940년 5월부터 9월에 『삼천리』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에 연재된 「향토문화 좌담회」에서 문인들은 자신의 유년시절을 추억하는데, 진달래, 개나리, 함박꽃, 버들 등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막연하게 나물 캐러, 꽃 따러 다녔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전통시가에서도 어떤 꽃을 집중적으로 읊기보다는 봄의 도래에 초점을 맞춘 노래가 많다.

다만 식민지시대에 들어서는, 일본의 상징으로의 벚꽃의 안티테제로 진달래와 복숭아꽃이 강조되었다.[73] 달리 말하면, 벚꽃에 대립항이 될 수 있는 조선의 봄을 알리는 것 중에서 적당한 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이는 "이즘엔 사구라 꽃츠로 이름을 팔지만 그 보담도 용두각하면 버드나무가 잇서서 더 우아한 봄 정이 솟아납니다"라며, 꽃이 아닌 버드나무로서 조선의 봄을 상찬하기도 하였다.[74]

물론 진달래는 최치원(857~?)의 「두견」 등 읊어온 역사가 오래인 조선의 대표적 봄꽃이다.[75] 전술한 바와 같이 복숭아나무와 버드나무는 조선시대에 상품가치와 풍수지리학상의 이유로 많이 심어진 수종으로, 한양에도 봄이면 사람들이 몰리는 명소가 존재하였으며, 특히 버들은 내지의 봄을 그리워하는 이치야마도 인정하는 바였다. 따라서 진달래, 복숭아꽃, 버들이 공히 조선의 봄을 상징하는 풍경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일본 벚꽃과의 대비를 통해 더욱 부각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벚꽃은 조선인에게 '일본' 그 자체로서 인식되어져 왔으며, 대항해야할 존재였던 것이다.

## 4.2 창경원의 야앵 풍속과 그 명성

일본과 그 선진문화의 상징으로 식수되기 시작한 조선 내 벚꽃은 일본인의 조선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식수의 규모도 커지고 전국적 움직임으로 확대되어

73) 李泰俊(1933.4.12) 「関北이 그립다 山火같은 진달래!」 『동아일보』, 「論説 桃花美観」(1909.5.4.) 『皇城新聞』 등.

74) 崔泳柱(1932.4) 「華城春風曲」 『별건곤』 50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편(2013) 『(잡지로 보는) 한국 근대의 풍경과 지역의 발견』 4, 국학자료원, p.287. 一波(1935.5) 「木浦의 봄을 차저」 『호남평론』 1-2, 『(잡지로 보는) 한국 근대의 풍경과 지역의 발견』 7, 앞의 책, pp.159-163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75) 崔致遠 「杜鵑」 『桂苑筆耕集』제20권. 조선시대의 일례로는 卞季良의 7언절구 「遊進鳳山寺」에 「곳곳마다 춘풍 속에 철쭉꽃이 피었구나(処処春風躑躅花)」라는 구절이 있다. 『春亭集』 권3.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에 의함.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나갔다. 성장이 빠른 소메이요시노 덕에 몇 해 후에는 꽃구경이 가능할 만큼의 장소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1912년부터는 매해 꾸준히 신문지상에 관앵(觀櫻)의 기사가 등장하게 된다.[76]

조선 내 수많은 벚꽃 명소들 중에서도 1909년에 개원, 1924년에 야앵(夜櫻) 관람이 시작된 창경원의 벚꽃은 2천 수가 넘는 규모와 장소의 특수성 때문에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어 봄마다 화제가 되었다. 개화시기 입장객 수가 1909년에는 1.5만 명, 1922년에는 30만 명, 1924년에는 41만 명, 1940년에는 100만 명을 기록하였는데, 경성인구는 1920년대 30만 명, 1940년대 93만 명이었으니,[77] 경성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녀간 셈으로 벚꽃의 집객력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창경원의 야앵문화에 대해서, 벚꽃을 일본의 상징으로 보았던 조선의 대중매체에서는 소비성, 향락성, 맹종, 무질서 등 야앵의 부정적인 측면을 끊임없이 보도했고, 이는 선행연구에 이미 정리되어 있는 바이다.[78]

그런데 이러한 야앵문화를 자랑스러워해야할 재조일본인의 시각 또한 창경원의 야앵문화에 대해 부정적이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다음은『경성잡필』(京城雜筆) 1936년 6월호에 실린 재조일본인의 글이다.

> 머지않아 푸른 융단을 깐 것처럼 아름답게 싹틀 잔디는 모두 짓밟히고 여기 저기 신문지 조각과 도시락 쓰레기와 캐러멜 빈 상자 등등이 일면에 흩어져 있고, 성지(聖地) 창경원도 나무 위는 꽃이 필대로 폈지만 지상은 마치 쓰레기장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횡행활보(橫行闊步), 방가란무(放歌乱舞), 교통방해 등 살풍경을 있는 대로 다하고, 꽃을 보는 사람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어지럽히던 학생 단체도 있었다. 꽃구경 관중 속에는 소년소녀들도 적지 않았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도 또 이런 꽃구경이 계속되는 것일까. 나는 꽃구경 풍경을 볼 때마다 경성 시민으로서, 학생으로서, 공공심(公共心)이 부족함과 청결과 순화(純化)에 대한 관념이 결여되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79]

76)「観桜과 임사열차」(1912.4.26)『매일신보』.
77) 김해경, 앞의 논문, p.130.
78) 김현숙, 앞의 논문, pp.150-153, 김해경, 앞의 논문, pp.133-135.
79) 本多司(1936.6)「花見風景」『京城雜筆』6, 京城雜筆社, p.5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남에게 피해를 줄 만큼 멋대로 행동하는 관앵 태도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내용이다. 이밖에도 전에 인용한『성산 15년』의 저자인 관리도 야앵이 시작된 다음해에 창경원을 찾고 있으나, "혼잡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일고 있음을 생각하니 그다지 길게 서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다"고 한다. 안주의 마음을 굳히게 하는 꽃으로서 벚꽃이 필요하다던 그도 인파에 휩쓸리면서 봐야 하는 창경원의 벚꽃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양국 경험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관람객수로 보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벚꽃을 즐겼으며, 그 명성도 사그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직 창경원 야앵을 보러 일부러 철원에서 올라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80] 늙은 어머니를 포대기로 싸서 들쳐 업고 이리저기 구경시켜드리는 신사도 있었다.[81] "世上에 조타는 것도 오눌 못 볼지 来日 못 볼지 하는 病老의 어머니에게 조타는 昌慶苑을 마지막으로 뵈여드리랴"라고 있듯이, 혼잡과 무질서에 지친다 한들 근대문물을 이용해 아름답게 꾸며진 창경원은 좋다고 소문난 누구나 한번은 가보고 싶은 명소였던 것이다.

대규모로 식수된 벚꽃의 '집객력'은 벚꽃의 상징과는 무관하게 조선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4.3 조선 내의 벚꽃에 대한 인식의 변화

식민지 시기 조선인이 벚꽃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하나는 벚꽃을 일제의 상징으로 파악하여 그 자체를 부정하는 유형이고, 또 하나는 벚꽃이 아닌 관앵문화를 비판하는 유형이다. 진달래나 복숭아꽃을 찬양한 글은 전자에 해당하고, 창경원의 야앵문화를 비판하는 글은 후자에 해당한다.

동래온천을 찾은 최상덕의 아래 기행문은 벚꽃자체를 부정하는 유형의 예이다.

80) 金声近(1932.8)「異郷片片」『東光』36, 동광사, p.80.
81) 方仁根(1927.5)「京城雑感」『신민』25,『(잡지로 보는) 한국 근대의 풍경과 지역의 발견』2, 앞의 책, p.6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바람이 차기로는 사흘 前에 떠난 서울과 다름이 업것마는 꽃時節은 南國의 體面을 維持하기에 足하리만치 빨넛다. 杏花는 진지 오랜 이곳에는 明日부터 開催할 夜桜大会 準備에 奔走하다. 아마 二週日은 花辰이 압스는 모양이다. 여기도 日本의 神社가 잇고 鳥居가 잇고 여게 調化되리만치 사꾸라꽃이 만타. 京城 東大門밧 永導寺 門燈裝飾을 蓮花를 無視하고 桜花로 맨드는 이 판에 '東莱カラ 釜山カラ'로 예부터 일홈 놉흔 이곳이여니 怪異할 것도 업섯다.[82]

일본인이 지은 신사와 신사 입구의 문 그리고 벚꽃이 있음을 묘사한 글인데, "여기도", "蓮花를 無視", "怪異" 등의 단어 선택에서 글쓴이의 비판적 어조를 감지할 수 있다. 조선 곳곳에 퍼져 있는 신사와 벚꽃은 나라를 병들게 만든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바이러스인 양 그리고 있고, 또 절에서 앵화를 쓰는 것을 연꽃을 무시한다고 한 대목은 불교마저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던 현실을 비꼰 것이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벚꽃 또한 봄에 피는 꽃 중에 하나이고 일반적인 미적 개념으로 보아 아름다운 꽃이며, 벚꽃 색 또한 개나리 진달래와 같은 다른 조선의 봄꽃들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이었다.

노자영은 이상화, 박종화 등과 같은 백조동인으로 낭만주의의 사조를 지향하는 백조파의 시인이자 수필가였다. 최상덕이 동래온천의 벚꽃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쓴지 10년 후, 감상적 낭만주의와 유미주의의 경향을 따르는 노자영의 눈에 비친 동래온천의 벚꽃은 오롯이 봄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 東莱温泉의 周邊에는 유난이도 '사꾸라'가 많아서 千紫萬紅의 그 많은 꽃들이 구름인지 눈인지 温泉一帶를 불덩이와 香氣 속에 묻어버린다. 이때이면 東莱温泉은 濃化粧을 한 하나의 아씨로서 金井山을 불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花無十日紅으로 열흘도 못되여, 한줄기 비바람에 우수수 落花가 질 때이면 우리 東莱温泉은 愁心을 띄고 狂亂하는 女人과 같다. 그러나 그때에 金井山에는 진달래가 한창이어서 그 温泉을 보고 손짓을 하지 않는가? 果然 金井山 진달래는 유난이도 곱

82) 崔象德(1927.5)「春風에 불니여」『신민』25,『(잡지로 보는) 한국 근대의 풍경과 지역의 발견』5, 앞의 책, pp.175-17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 포기포기 한데 뭉키어 피는 꽃이 마치 타올으는 모닥불 같다. 温泉에 사꾸라가 지면 진달래가 피고 진달래가 지면 綠陰의 장막이 버려지고 그 뒤에는 丹楓, 雪景 等 變化있는 色彩로써 金井山과 温泉一帶를 골골로 裝飾하는 것이다.[83]

이처럼 노자영의 눈에 비친 동래온천의 구름 같은 벚꽃은 진달래의 붉은색과 조화를 이루며 봄의 색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꽃이었다.

이러한 벚꽃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글쓴이의 사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나, 10년의 세월의 흐름 또한 일본이라는 벚꽃의 상징을 옅게 하고 항시 봄이면 조선의 각지에서 피는 꽃 중의 하나로 인식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노자영의 기행문의 2년 전인 1937년 7월에 간행된 『소년』에는 소풍에 다녀온 후에 쓴 것으로 보이는 「報德寺行」[84]이라는 6학년 학생의 글이 있는데, 이 글에 언급되고 있는 벚꽃 또한 일본의 상징으로서가 아닌, "어묘(御墓)가 저쪽 사꾸라 사이로 보였다", "한참 올라가다가 본즉 저쪽 사꾸라 사이로 개와집 한 채가 보였다"라는 식으로 단순한 풍경 묘사로써 쓰이고 있다. 이 소년에게 있어서 '사꾸라'는 이미 일상적인 조선의 봄 풍경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벚꽃을 일본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식인들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문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벚꽃에 입혀진 상징은 제거되고, 조선의 자연풍경의 하나로 받아들여가는 변화도 일어나고 있었다.

## V. 결론

"일본혼"의 메타포로서의 벚꽃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었다. 일본의 봄에 피던 꽃 중의 하나였던 벚꽃은, 한 순간에 져버리는 벚꽃의 특징에서 철학

83) 盧子泳(1939.12)「温泉場巡礼記」『조광』5-12, 『(잡지로 보는) 한국 근대의 풍경과 지역의 발견』5, 앞의 책, p.52. 이밖에도 창경원의 벚꽃을 그저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글도 있다. 薛錦波(1931.9)「昌慶苑의 一夜」『朝鮮逓信協会雑誌』160호, 朝鮮逓信協会, p.147.
84) 李明九(1937.7)「報德寺行」『소년』1-4, 『(잡지로 보는) 한국 근대의 풍경과 지역의 발견』8, 앞의 책, pp.188-18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적 은유를 찾아낸 일본인들에게 특히 사랑을 받아 즐겨 심어지기 시작하였다. 벚꽃은 봉건주의사회에서 수도의 선진문화를 따라잡기를 염원하는 지방영주들에게 선진문화의 상징으로 선택되어 일본 각지에서 그 개체수를 늘려간 것이다. 대규모 식수로 인한 군집된 형태로의 벚꽃은 많은 인파를 불러 모으게 되고, 이러한 벚꽃의 집객력은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켰다.

더 많이 심을수록 더 많은 인파를 불러 모을 수 있고, 더 많은 이익을 담보할 수 있었던 벚꽃은 재래품종보다 더 싸고, 더 화려하고, 식수된 나무가 더 빨리 꽃을 피울 수 있는 개량품종 '소메이요시노'를 통해 일본의 봄의 대명사가 될 만큼 다른 꽃을 압도하게 된다.

일본의 봄을 상징하게 된 벚꽃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꾀하던 무렵부터 서야 "일본혼"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중세의 지방영주가 수도의 선진문화를 따라잡기 위해 벚나무를 식수하였듯, 식민지로 이주하게 된 일본인들은 일본의 선진문화의 상징으로 혹은 일본영토의 상징으로 벚나무를 심고 벚꽃을 감상하고자 하였다.

조선에서도 벚꽃은 피었고, 꽃을 통해 특정한 관념을 상징하고자 하는 행위 또한 사군자의 매화나 국화 등의 예를 통해서도 있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벚꽃에서 특정한 관념을 찾아내지 않았으며, 벚꽃의 계획적인 식수 또한 목재를 위한 예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심어지기 시작하던 벚꽃에 대해, 조선인은 처음부터 일본의 상징으로 파악, 벚꽃의 보급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벚꽃 또한 봄에 피는 꽃이며, 한국 또한 예로부터 봄이 오면 꽃을 보고 즐기던 풍속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기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벚꽃이 상징하는 관념에 대한 인식은 옅어지고, 대규모로 식수된 벚꽃은 그 특유의 집객력으로 인해 벚꽃의 조선의 봄 풍경 중의 하나로 정착되어, 조선인 또한 벚꽃을 즐기게 되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참고문헌


강신용, 장윤환(2004)『한국근대 도시공원사』대왕사, p.72.

김기빈(1993)『600년 서울 땅이름 이야기』살림터, p.163.

김무진(2011)「조선후기 식목활동에 관한 연구」『한국학논집』제4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249.

金声近(1932.8)「異郷片片」『東光』제36호, 동광사, p.80.

김해경(2011.12)「벚꽃을 통해 본 근대 행락문화의 해석」『한국전통조경학회지』29-4, 한국전통조경학회, pp.124-136.

김현숙(2008)「창경원 밤 벚꽃놀이와 夜桜」『한국근현대미술사학』19,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p.139-162.

김호종(1996)「조선후기의 식목활동」『안동사학』2, 안동사학회, pp.91-107.

남용익(1655)『聞見別録』민족문화추진회편(1975)『(국역)해행총재』6, 민족문화추진회, pp.17, 93.

노성환(2008)「일본의 하나미와 한국의 화전놀이」『비교민속학』37, 비교민속학회, pp.137-16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편(2013)『(잡지로 보는) 한국 근대의 풍경과 지역의 발견』1~11, 국학자료원.

薛錦波(1931.9)「昌慶苑의 一夜」『朝鮮逓信協会雑誌』160호, 朝鮮逓信協会, p.147.

유득공(1800경)「京都雑志」국립민속박물관편(2007)『조선대세시기3』국립민속박물관, p.55.

유본예(1830序), 서울특별시사편집위원회편(2000)『한경지략(제2판)』[서울특별시], pp.18-283.

이상주(2012)『왕의 영혼, 조선의 비밀을 말하다 = 宗廟野史』다음생각, pp.162-168.

李泰俊(1933.4.12)「関北이 그립다 山火같은 진달래!」『동아일보』.

조수삼(1795.7序)「세시기(추재집)」국립민속박물관편(2003)『조선대세시기1』국립민속박물관, pp.47-49.

한양명(2001)「화전놀이의 축제성과 문화적 의미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한국민속학』33, 한국민속학회, pp.335-358.

황기원(2009)『한국 행락문화의 변천과정』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143-146.

上田常一(1933.4.27-28)「京城の桜の来歴」上・下,『京城日報』.

内野健児ほか(1926.4)「朝鮮の春」『朝鮮公論』14-4, 朝鮮公論社, pp.41-48.

大森固庵(1683), 鈴木棠三編(1984)『千種日記』上, 古典文庫449, 古典文庫, pp.101-102.

岡山鳥(1827), 今井金吾校訂(1973)『江戸名所花暦』八坂書房, pp.3-4.

小野佐和子(1992.3)「江戸時代の都市と行楽」『南九州大学園芸学部研究報告 自然科学・人文社会科学』22, 南九州大学, pp.55-159.

小野良平(1988.3)「飛鳥山にみる名所づくりの思想」『造園雑誌』51-5, 社団法人日本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園学会, pp.14-16.
金森敦子(2004)『伊勢詣と江戸の旅』文芸春秋, p.24.
木村健二, 高崎宗司외(1993)『膨張する帝国の人流』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5, 岩波書店(2005年 4 刷), pp.15-33.
高媛(2012.12)「満洲における桜の名所「鎮江山公園」の誕生」『Journal of Global Media Studies : gms』11, 駒沢大学グローバル・メディア・スタディーズ学部, p.13.
亀岡栄吉(1926)『四季の朝鮮』朝鮮拓殖資料調査会, 韓国地理風俗誌叢書298, 경인문화사(1995), pp.3-51.
神崎宣武(1991)『物見遊山と日本人』講談社, p.43.
経済雑誌社編(1905)『国史大系』第14巻, 経済雑誌社, p.351.
斎藤月岑(1838), 朝倉治彦校注(1970)『東都歳事記 1』東洋文庫159, 平凡社, pp.218-219.
高木博志(2006)「桜とナショナリズム—日清戦争以後のソメイヨシノの植樹—」『近代天皇制と古都』岩波書店, pp.249-253.
旅の文化研究所(2011)『旅と観光の年表』河出書房新社, p.54.
朝鮮雑誌社編(1909)『(最近)朝鮮要覧』日韓書房(1910개판), pp.196-199.
朝鮮雑誌社編(1927)『居留民之昔物語』朝鮮二昔会事務所, pp.156-157.
津村正恭(1800경)「花見の日記」板坂耀子校訂(1991)『近世紀行集成』国書刊行会, p.456.
戸田茂睡(1683), 国書刊行会編(1915)『戸田茂睡全集』国書刊行会, pp.284-5.
豊田鉄騎(1926)『星霜十五年』帝国地方行政学会, pp.238-240.
内藤晶(1966)『江戸と江戸城』鹿島出版会 p.134.
布村重次郎(1933)『(満鮮飛行の旅)燕のように』大邱大橋書店, pp.82-83.
花屋敷菊塢(1828)『墨水遊覧誌』, 大野広城編(1916)『江戸叢書』巻1, 江戸叢書刊行会, pp.16-17.
林忠・林恕共撰, 国書刊行会編(1920)『本朝通鑑』第16, 国書刊行会, p.208.
福井貞助 校注・訳(1994)『竹取物語 [外]』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12, 小学館, pp.184-185.
本多司(1936.6)「花見風景」『京城雑筆』6, 京城雑筆社, p.56.
松田甲(1922.11)「桜を牛耳洞に移植せし洪良浩」『朝鮮』92호, 朝鮮総督府, pp.85-93.
三好学講(1916.4.13.-19)「吉野の桜」1~6,『大阪朝日新聞』.
柳田国男(1939)『歳時習俗語彙』民間伝承の会, pp.396-419.
矢野竜渓(1915)「山桜と吉野桜」『出たらめの記』縮刷名著叢書15, 東亜堂書房, pp.311-313.
若月紫蘭(1911), 朝倉治彦校注(1968)『東京年中行事 1』東洋文庫106, 平凡社, p.206.

❖ 투고일 : 2014.06.30
❖ 심사완료일 : 2014.07.25
❖ 게재확정일 : 2014.08.1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국문초록

# 한일 상춘문화와 근대

## - 벚꽃의 상징 변화를 중심으로 -

김정은

한일 양국에는 예로부터 봄이 되면 꽃을 보고 즐기는 문화가 있었다. 한순간에 져버리는 벚꽃의 특징에서 철학적 은유를 찾아낸 일본인들은 벚꽃을 특히 애상하고 심었다. 근세 초기, 벚꽃은 문화의 중심이었던 교토의 상징으로서 교토와 같은 번영을 기원한 번주들에 의해 대량으로 심어지고, 전국 각지에서 그 수를 늘려 나갔다. 유락문화가 발달한 근세 중기 이후에는 단체 꽃구경이 성행하고, 벚꽃의 집객력에 주목한 식수도 행해지게 된다. 막말에 소메이요시노라는 품종이 개발된 이후에는 벚꽃의 식수는 더욱 증가하게 되어, 벚꽃은 일본의 봄을 특징지을 만큼 다른 꽃을 압도하게 된다.

일본의 봄을 상징하게 된 벚꽃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꾀하던 무렵 “일본혼”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된다. 일본인의 일본의 선진적인 문화를 이식한다는 개념에서 일본 영토의 상징으로 식민지에 벚나무를 심었다. 또 식민지에 이주한 일본인은 내지의 봄을 그리워하며 스스로의 생활환경 주변에는 반드시 벚나무를 심었다. 재조일본인의 증가와 함께 벚나무 식수도 활발해져, 1920년대에는 조선에도 벚꽃 명소가 각지에 생겨나게 된다.

한편 조선에서는 벚꽃에서 특정한 관념을 찾아내지 않았으며, 벚꽃의 계획적인 식수 또한 목재를 위한 예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따라서 일본제국주의와 함께 심어지기 시작하던 벚꽃에 대해, 조선인은 처음부터 일본의 상징으로 파악하고 벚꽃의 보급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벚꽃 또한 봄에 피는 꽃이며, 한국 또한 예부터 봄이 오면 꽃을 보고 즐기던 풍속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었기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벚꽃이 상징하는 관념에 대한 인식은 옅어지고, 벚꽃은 조선의 봄 풍경 중의 하나로 정착되어, 조선인 또한 벚꽃을 즐기게 되었다.

Key Words : 벚꽃, 식수, 관앵, 꽃구경, 식민지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 Spring celebrations and modernity in Korea and Japan
## - Focusing on the symbolic change of the cherry tree -

Kim, Jung-eun

Ever since ancient times, the people of both Korea and Japan have enjoyed viewing spring foliage.

In particular, the Japanese found a philosophical metaphor from the characteristics of cherries, which were planted for their cherry blossoms in particular. In early modern times, the cherry tree was planted in large quantities by feudal lords and others who prayed for prosperity. For example, in Kyoto, which was made to be the center of culture and increased the numbers throughout the entire country. Since the development of the Somei-Yoshino variety of cherry tree in the Edo period, planting of cherries increased further, and Sakura soon became synonymous with spring in Japan, eventually overwhelming other flowers. When Japan's imperialist motivations led it to colonize other countries, Sakura came to symbolize the Japanese spring and was established as a symbol of "the Japanese soul." Under the concept of transplanting the advanced culture of Japan and as a symbol of the country's territory, Japan planted cherry trees in its new colonies.

Korea was no exception to this policy, and the Japanese planted cherry trees there as well, for this reason and also to supply wood to produce archery materials. Therefore, Koreans regarded this as a symbol of Japan from the beginning. Sakura was planted in large quantities along with the advance of Japanese imperialism and was negative to the spread of the cherry tree. It represents the sense of resistance in the form that you can unplug the cherry trees that have been planted, such as criticizing the hedonistic culture of Hanami. However, since cherry trees produce cherry blossoms in spring, and since it was customary to enjoy outdoor festivals and feasts while folding flowers in Korea to celebrate the coming of spring, the cherry as a symbol of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Japan lessened and Sakura even became a part of the Korean spring landscape.

Key Words : Cherries, tree planting, cherry blossom-viewing, colony

KYOBO 교보문고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